

새로운 희망을 위한 노래 '넥스트 투 노멀'

'ACC 페니' 두번째 작품...내달 25-26일 예술극장2

최정원·배해선·이건명·마이클 리 등 실력과 배우 열연 토니어워즈 폴리처상, 역사상 가장 완벽한 뮤지컬 호평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희망을 노래하는 뮤지컬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다음달 25-26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ACC 페니' 두번째 작품으로 화제의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극작가 겸 작사가 브라이언 윌과 작곡가 톰 킷이 1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2008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이어 2009년 브로드웨이에서 입성했다.

2009년 토니어워즈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주요 3개 부문(음악상·편곡상·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폴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16년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와 그녀의 병이 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탄탄하고 정교한 드라마로 풀어냈다. 창작진은 실제 양극성 장애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위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품을 다듬었다.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엄마 다이애나와 한계에 치닫는 가족간의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는 모습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기에 파워풀하고 중독성 강한 넘버들과 감렬한 록을 포함한 재즈, 컨트리, 발라드 등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극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여준다.

3층 철제 구조물과 다채로운 조명이 어우러진 세련되고 아름다운 무대는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넥스트 투 노멀' ACC 공연은 서울 공연 이후 처음 진행되는 지방투어로 최정원·이건명·마이클 리·배해선·박인배·김현진·김환희·산돌·최재웅·이서영·유희승·홍기범 등 서울 무대에 올랐던 국내 실력과 배우들이 모두 출연해 눈길을 끈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와 7시, 26일 오후 2시와 6시 총 4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이며 ACC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ACC제공)

찬란했던 고려예술의 정수 '고려금니사경' 모티브 전시

보성 대원사 '난원 정향자 사경 초대전'...내달 18일까지

고려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천년고찰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펼쳐진다.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난원 정향자 작가 초대전 '고려예술의 정수 감지금니사경(紺紙金寫泥經)'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화려하고 섬세했던 '장엄사경'을 만날 수 있다.

'금니사경(金泥寫經)'은 부처님 말씀인 불경을 금색 가루로 기록한 것이다. 고려불화, 고려청자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는다. '감지'는 감색으로 물들인 종이를 뜻한다.

'사경'은 조선시대 송유역불 정책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왕실에 소장된 사경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전통마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2020년 문화재청에서 전통사경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계승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안남찬 박물관 학예사는 "사경 작업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매우 정교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높은 집중력과 정성이 요구된다"며 "그중 '고려 사경'은 국민안과 왕실 변역을 기원하고 부모님의 극락왕생,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복받기를 기원하며 아름답게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교한 공을 들여 오랜 노력을 기울인 작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장락만년 비천도' 등을 선보인다. /최명진기자

시대·세대를 넘어 소통하다

'잉갈라' 그룹전...28일까지 김넷과갤러리

중견작가와 청년작가가 서로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한 특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는 28일까지 동구 대인동 복합문화공간 김넷과에서 열리는 '잉갈라' 그룹전이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김상연·노은영·전현숙·조근호 작가가 함께한다.

'잉갈라'는 전라도 사투리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짓이겨버리다'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이겨낸다는 의미로, 기존 작업들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장르·매체를 활용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는 포부다.



조근호작 '어름바다' 개성과 열정이 어우러진 네 명 작가의 그림은 예술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영감과 감동을 전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음악의 악마'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 독주회

오는 11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의 6번째 바이올린 독주회가 '음악의 악마'를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펼쳐진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은 광주 출신으로는 최초로 빈 국립음대 바이올린 전공 예비과, 학사, 석사과정을 베타나 슈미트 등에게 사사했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 헝가리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 등에서 협연한 바 있다. 현재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

장파 K아트 리더를 맡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악마와 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곡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생상 죽음의 무도 작품번호 40번이 서막을 장식한다. 작곡가 생상이 1870년대 상징주의 시인 앙리 카잘리스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교향시다. 다음 무대는 파가니니의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그 댓가로 연주력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뛰어난 테크닉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파가니니의 바

이울린 곡이다. 이어 시라사테의 구노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연주회용 환상곡 작품번호 13번을 들려준다. 피아노의 극적인 코드로 시작돼 무겁고 '저주받은' 음악과 조금 더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뒤따른다. 악마의 아리아 '황금 송아지', 파우스트 아리아 '정결한 집' 멜로디가 연주된 후 2막 마지막 왈츠 장면 음악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타르티니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악마의 트릴'이 대미를 장식한다. 꿈에 나타난



악마가 연주하는 것을 들은 후 그 기억을 더듬어 악보에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얽힌 타르티니 소나타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들여 진행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